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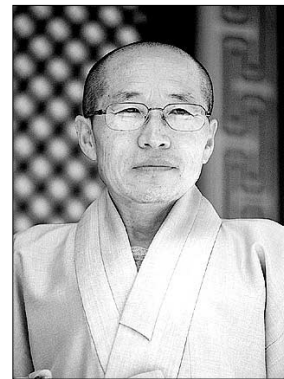
시조로 듣는 부처님 말씀 새롭네

시조시정경
경암 스님 지음
여시아문
2만원

“형상에 마음 주고 차별망상 짓지 마라/ 순간도 영원함도 느껴 갖는 망상의 틀/ 이 세상 최상의 수행 그 이름 ‘반야바라밀’.” (반야시 제7장 4)

시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읊는다? 불입종 총무원장 경암 스님(제천 송화사 회주·사진)이 한국문화사상 최초로 불경을 시조시(時調詩)로 노래한 <시조시정경>을 펴냈다.

경암 스님은 1970년 첫 시집 <낙뢰목의 여진>을 선보인 후 <시조문학>에 ‘부양저희’란 시조시로 등단했다. 시조의 운율에 불교의 진리를 실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스님은 <법시(法施)>와 <불입(佛入)>지 등의 불교계 잡지에 시조시를 발표하기 시작해, 30여 년간 ‘시조시 불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지은 시조시만 해도 540여 수를 헤아린다.



30여년 시조시 지어온
경암 스님 불경 시조집

이번에 선보인 <시조시정경>에서는 시조시를 ‘팔상성도’와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순으로 정리해 실었다.

그 중 부처님의 열반을 노래한 시조시를 살펴보자. “부처님 열반드심, 증생이여 슬퍼말라/ 깨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수행과정, 가르침 등을 함축적이면서도 운율이 살아 있는 시조시로 되살려 누구나 쉽게 읽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했다. 청주 관음사 조실 이두 스님은 ‘시조시정경의 문학사적 의의’란 글에서 “최초의 장경 시조시집인 <시조시정경>은 시작(詩作)으로 쓰인 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은 뚜렷한 원력의 표현으로 쓰인 것”이라고 평했다.

경암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조시의 그릇에 나누어 담는 것 세월을 보냈다”며 “많은 사람들이 시조시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님은 월사 스님을 은사로, 태허 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후 고산사와 금강암 보덕사 등에서 수행 정진했다. 1977년 법화유치원을 설립했고 현재까지 17년간 불입종 총무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여수령 기자

종교의 존재 이유를 묻다

50가지 키워드로 종교계 문제점 조목조목 짚어



종교는 없다
권오문
문이당
1만3천원



이 시대 종교의 의미와 역할을 무엇일까? 권오문은 “오늘날 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류의 정신적 안정을 돕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국갤럽이 지난해 1월 실시한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가량인 53%의 응답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67.9%)’ 종교를 믿는다고 답했다. 이는 1984년 조사 때보다 종교인 비율이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시대가 격박하고 험겨워질수록 종교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을 보여준다.

하지만 종교인의 증가가 종교의 ‘순기능’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종교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종교인의 자질 논란과 목회적 세습, 교권 다름 등이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자본주의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절대선을 추구하는 종교가 어느새 ‘권력’과 ‘수단’으로 변질된 한 단면이다. 최근 서점가에 <승려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는 다소 과격한 제목의 책들이 선보이는 것도 종교의 ‘타락’을 경계하는 목소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종교전문기자로 활동한 권오문 세계일보 기획실장이 펴낸 <종교

는 없다> 역시 오늘날 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 보는 책이다. 본래와 전적으로 치달은 종교계의 분열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 행태 등 오늘날 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50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하나님, 부처님을 격하시키는 기복 신앙 행태” 편에서는 종교를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오늘날의 종교 행태를 꼬집는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처를 교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이라는 지은이는 “불자들이 복을 비는 행위를 복을 짓고 닦는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하고, 이는 마음 닦는 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처님 모시기 경쟁’에도 따르듯 일침을 가한다. “불사란 이름 아래 대형 불상 경쟁을 벌이거나 수많은 불상을 조성해 시뭏돈을 모으는 행위는 타

종교인들이 불상을 ‘우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원인”이며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정진할 때 불상이 우상이나 성상이나 하는 논란은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현대 유물론과 유행, 교회 세습 등으로 얼룩진 한국 개신교와 ‘공자 사상’의 한계상 논란에 휩싸인 유교 등도 짚어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지은이는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종교계는 이제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종교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 진리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인류 구제’와 ‘세계 평화’라는 종교의 목표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교단과 교리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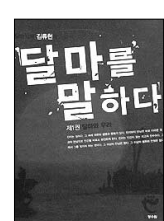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n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유심 2005 여름호>(만해사 상실천선양회 펴냄, 7천원)=기획특집 ‘종교적 상상력과 문학’ 2편에서는 박찬두 교수(중앙승가대)의 ‘문학을 읽면 경전이 보인다-법화경의 방편과 비유’, 김중희 교수(경희대)의 ‘현대문학과 기독교 사상’, 박영호 교수(협성대)의 ‘현대 서사와 도교적 상상력’ 등의 논문이 실렸다. 또한 박시교, 이태수, 송수권 시인에 대한 ‘시인론’도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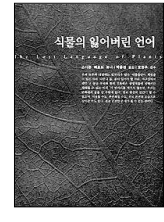
■ <달마를 말하다>(김류현 지음, 청수원, 9천6백원)=달마도를 10만 여점 그려 보급한 ‘달마자기’ 김류현씨가 달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펴낸 책. ‘달마 이야기’ ‘구도이야기’ ‘글모음’의 3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에서 달마의 일대기와 수행과정, 자신이 달마를 그리는 이유 등을 적고 있다.



■ <빨치산의 딸>(정지아 지음, 펴냄, 전2권, 각권 9천5백원)=1990년 출간됐다가 ‘이적표현물’로 분류돼 판권 조치 됐던 <빨치산의 딸>이 재간됐다. 출간 당시 출판사 대표는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고 작가는 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는 곡절을 겪었다. 소설가 정지아씨가 남포당 일원이었던 부모님의 삶을 재구성한 실화소설로,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족이 겪어야 했던 수난사를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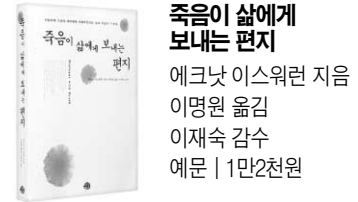


■ <식물의 잃어버린 언어>(스티븐 해로드 부너 지음, 박윤정 옮김, 오영주 감수, 나무심는사람, 1만3천원)=‘감잡을 수 없는 화제가 일어난 그다음 해 봄, 몇 백타르에 달하는 숲에는 야생 상추가 자라났다. 야생 상추는 순한 아편 같은 식물로, 통증을 멈추거나 완화해주며 수면을 돕는 효과가 있다. 우리 농부가 이보다 더 나은 약을 처방할 수 있겠는가?’ 약초와 식물을 연구해 온 지은이는 우리가 복용한 조제약의 대부분은 화학적 변이나 물질 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자연으로 배출되며, 이는 수중생물의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생태계의 파괴 없이 상추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7억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한 ‘식물’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 죽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블루마운틴 명상센터’를 설립한 인도 출신 명사가 에크나트 이쉬워런은 인도 경전 <까타 우파니샤드>를 재해석하며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까타 우파니샤드>는 소년 나치게타와 죽음을 신 야마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죽음을 초극하는 법을 제시하는 서사시로, ‘고대 신비 철학’과 시 가운데 완벽한 전범(典範)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는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바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죽음’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애써 외면해 버리기 십상이다.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책선(箕城峽峯)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초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행(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서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 사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송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일광스님의 신행수기, 기도발 이야기

기도발 祈禱發

부처님의 가피력은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불자에게 발현된다.

해가 중천에 뜨면 온 세상을 비추어 세상의 만물을 생성 존재하게 하지만 해가 먼 바다에서 떠오를 때 가장 높은 산 봉우리를 비추는 것 같이 자각히 기도하는 불자에게 부처님의 기도발이 있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사바세계 자력(自力)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탐진치 삼독의 결정체가 인간이요 사람이다. 여기에 자력이란 실로 어려서움의 극치요 무지의 소산이다. 겸손과 하심을 배워라. 불보살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불자가 아름답다.

신광사 홈페이지: www.kidobal.com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일광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신광사 (051-442-6556) ※ 법보사용은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도서출판 현대북스 (051-244-1251)

미륵은 진정 우리 곁에 있는가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1. 아함경에서 말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6. 주역에서 말하는 선천·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7. 극락세계는 진정 초법세계에 있는가?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시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재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시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법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겠다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해조음 053) 624-5586 / 정토사 053) 622-0333